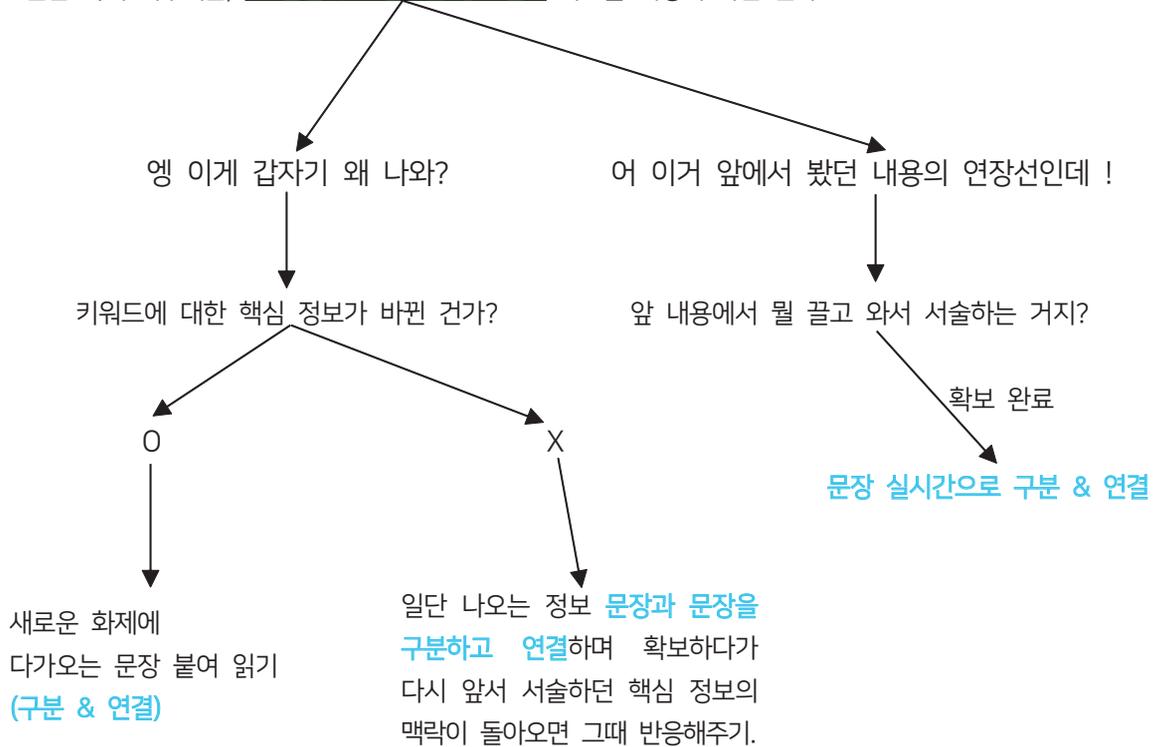


TOPIC 02. 초반부 이후 독해 (구분과 연결을 중심으로)

1문단 독해 이후에는, 각 문단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사고를 이렇게 하면 된다.



구분과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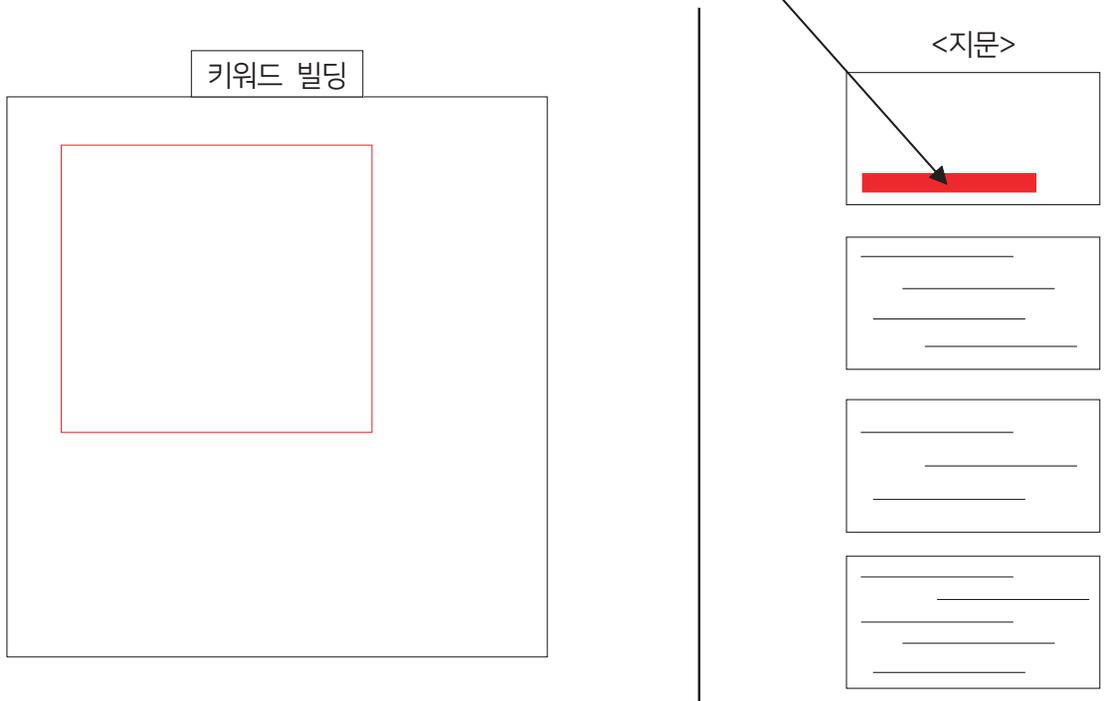
구분 : 앞서 쌓여있던 정보와 다른 범주의 정보가 등장하면, 끊고 새로운 범주 만들어주기
연결 : 앞서 쌓여있던 정보에 계속 쌓이는 정보라면, 붙여 읽기

구체화 : 불완전한 정보에 살을 붙여 완전한 정보로 만드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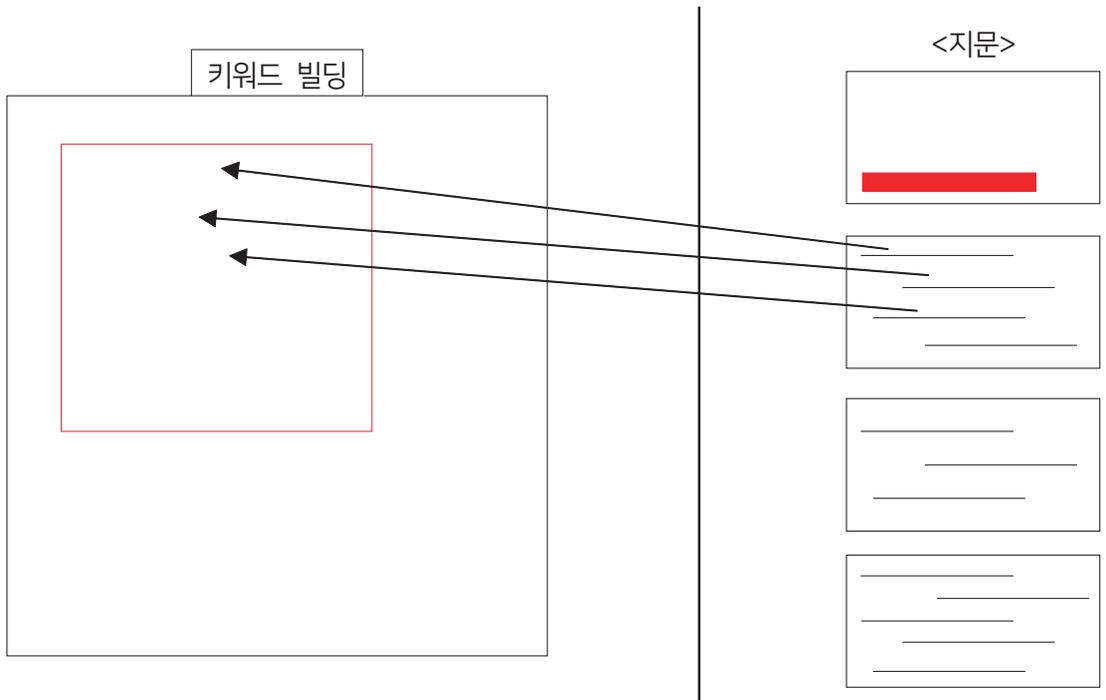
보충_범주가 정확히 뭔가요?

자꾸 범주 범주 하니까 그런갑다 했을건데 정확히 뭔지는 확 와 닿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따라서, 비유적으로 범주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하자. 건물에 방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배분해서 집어 넣는다고 이해하면 편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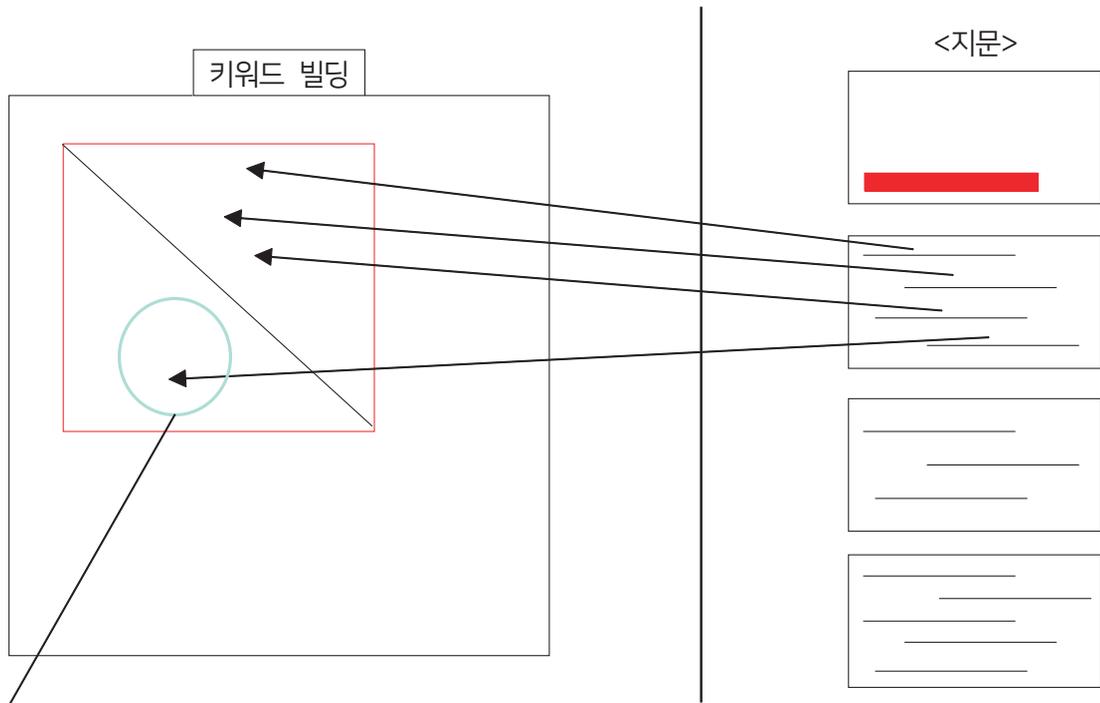
지문 초반부를 읽다 보니, 키워드에 대해서 뭘 설명할지 **핵심 정보가 확정**되었다.
 이러면 키워드라는 건물에 하나의 방이 만들어진 것이다.



이제 다가오는 문장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, 사람이 한명 한명 다가올 때 가족이면 한 방에 넣어야 한다고 하자.
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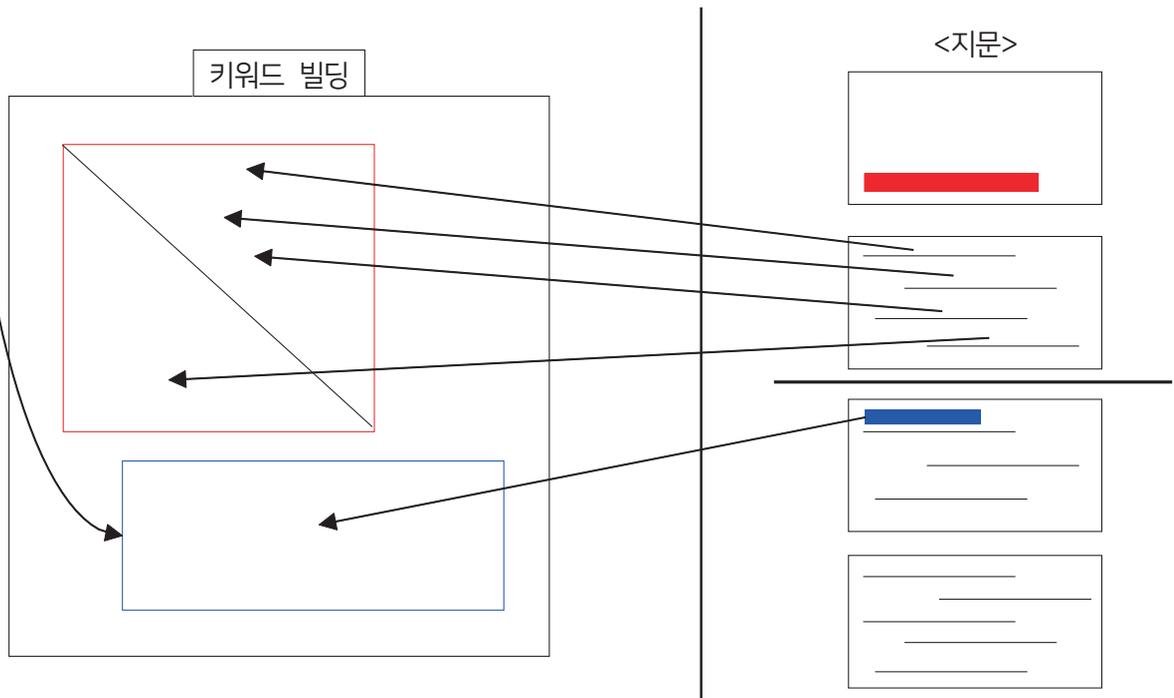


핵심 정보 제시 이후 다가온 세 사람은 각각 아빠, 엄마, 아들이었다. 그래서 한 방에 배정해줬다. 그런데, 다음 사람을 보니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가족이긴 한데 뭔가 같이 살기는 애매한 친척이다. 그런데 피를 나눈 가족이면 한 방에서만 살아야 한다. 그러면 원래 원룸이었던 방을 투룸으로 나눠서 배정해주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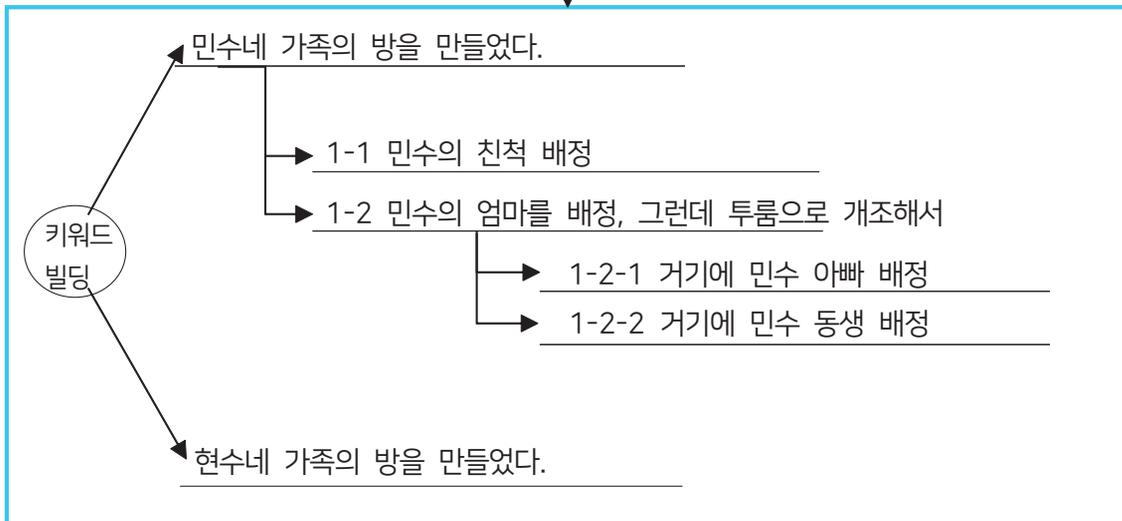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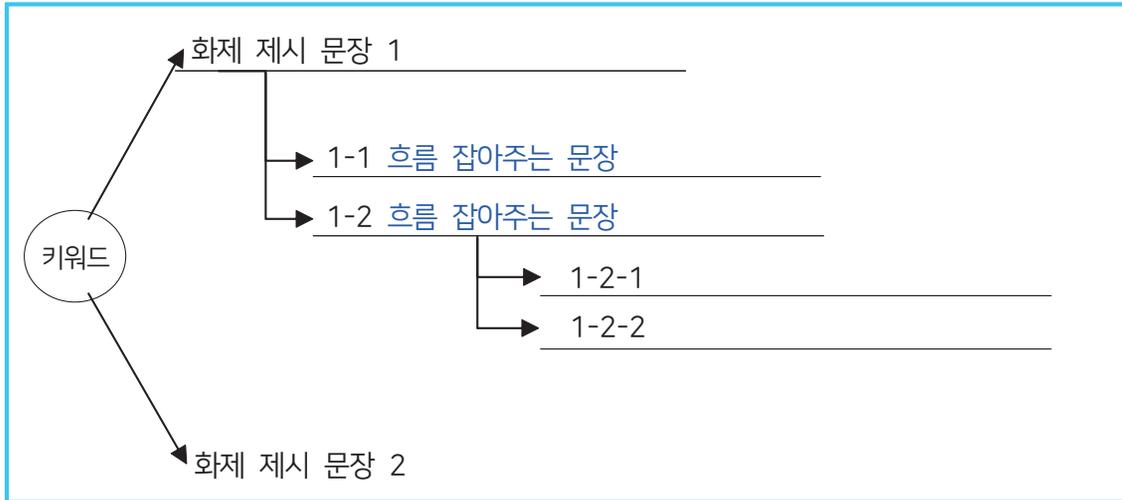


이런 식으로 말이다.

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니, 이 사람들과 피를 섞지도 않은 사람이다. 그러면 이제 키워드라는 건물에 새 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. (새로운 핵심 정보 제시)



이를 앞서 지문의 목차를 만들면서 읽으라고 했을 때 예시로 보여줬던 목차에 접목해서 이해해보면,



(민수와 현수는 키워드 빌딩에 입주를 신청한 사람이고, 가족이 아니다.)

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가올 때 그 문장 하나하나의 신원을 확인해,

같은 방에 배정해야 하는 사람인지 (같은 핵심 정보 하에서 서술) - 연결
 같은 방이라도 공간을 분리시켜 배정해야 하는 사람인지 (한 핵심 정보 내에서 세부 범주 갈라지는 경우) - 구분
 아예 다른 방에 배정해야 하는 사람인지 (핵심 정보가 바뀔) - 구분

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과 구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. **범주는 여기서 사람들이 배정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. 각 방,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벽이 세워져 분리된 공간, 이런 사람(문장)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범주가 되는 것이다.**